



"용 가는 데 구름 가고 범 가는 데 바람 간다"

뜻: 용이 나타날 때 구름이 따르고 호랑이가 나타날 때 바람이 불듯이, 아주 친한 친구나 짝꿍처럼 항상 함께 다니는 사이를 말해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동반 · 유대 · 필연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용	가	는	데	구	름	가	고
범	가	는	데	바	람	간	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용	가	는	데	구	름	가	고
범	가	는	데	바	람	간	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ㅇ][ㄱㄴ][ㄷ][ㄱㄹ][ㄱㄱ][ㅂ][ㄱㄴ][ㄷ][ㅂㄹ][ㄱㄷ]

웹에서 보기

